

# 패션 변천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 - 유희경, Payne, B의 복식사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교수 임숙자

目 次	
I. 서론	IV. 결과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조사방법	

### I. 서론

의복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형태가 변화 발달되고 있으나 인류의 역사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William James<sup>1)</sup>는 인간을 묘사할 때 인간은 육체 영혼, 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의복의 미적 기준은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복이 인간을 주변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인간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의복은 개개인에 있어서는 Maslow의 기본욕구인 안전하게 되고 싶어 하는 욕구,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하는 욕구,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 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행동을 유도하는 자아기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sup> 사회적으로는 사회질서를 체계화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사회상을 대변하는 대변자적 기능도 하고 있다.<sup>3)</sup>

문화적으로 의복은 인체비율의 변화, 지능개발, 사회다변성의 자극요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은 종교를 승화시킬수 있었으며 인간의 우월성을 형성시킴으로써 인류문화 및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인류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식의 특성요인을 한국과 서양, 시대

별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당시에 추구했던 지배적인 패션변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며 한국과 서양의 패션 변천요인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서양의 내면적인 사상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적 목적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패션

패션이란 특정기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는 우세한 스타일을 말한다. 패션은 강력한 힘이 있으며, 생동력이 있고 도전적이라는 독특한 속성을 공유하면서, 모든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한사람의 인격과 개성이 패션의 활용방식에 반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패션은 활동(action) 처신(bearing), 행동(behavior), 품행(demeanare), 태도(air)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존재<sup>4)</sup>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이러한 패션의 연구는 크게 특정한 스타일, 즉 제품 또는대상(object)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의 수용과정으로 보는 관점 둘로 분류하여 해석할 수 있다.<sup>5)</sup> 패션의 정의도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여 심리학에서는 "개성의 추구"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경합과 규범에의 동조", "역사학에서는 형태변화의 진화론적 의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추구"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통령적으로는 특정시기의 지배

적인 스타일을 의미한다.<sup>8)</sup>

패션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개성화와 자기주장의 이유에서 유도되어지며 동시에 존경하거나 동경하는 사람과 동일시 되고 싶은 모방욕구와 자기 특유의 개성화의 욕구와 같은 상반된 두 욕구를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모순된 패션의 특성을 Simmel은<sup>10)</sup> 인간이 원하는 고립(전쟁)의 욕구와 결합(평화)의 욕구로 설명했고, Flügel은 우월감과 열등감의 공존된 심리로 표현했으며, Sapir는 인간속에 내적하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 및 인습에 대한 보존욕구와 반항욕구로 설명하기도 한다.

A. Daniels는 패션은 당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며, 어느 지역이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형성되고 그 힘은 그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로 간주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효용적 측면에서 보면 패션은 기존 스타일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새로운 스타일은 실질적인 우수함보다는 새로움, 참신함, 인식된 적합성이 많이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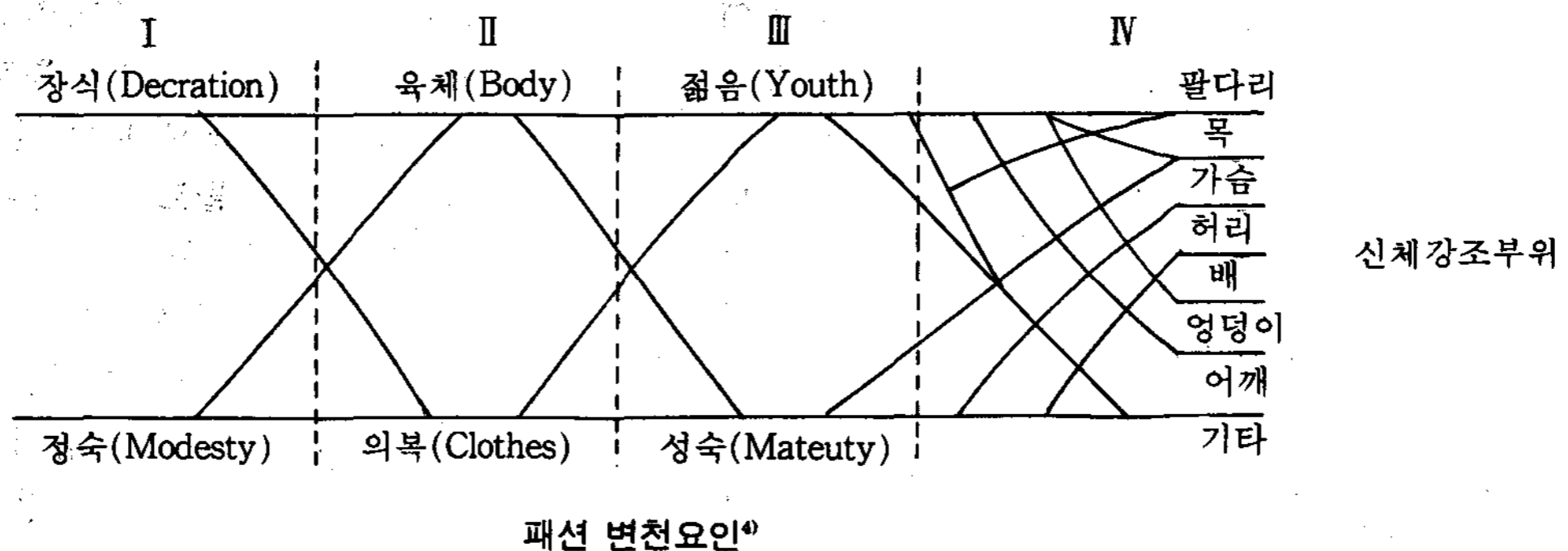
패션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복식사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단지 복식 변천에 있어서 한국의 복식은 Stratz의 의복분류방법에 의하면 한대성의복(artic Costume)에 속하고 서양의 복식은 열대성의복(tropical costume)에 속하며<sup>11)</sup> Müller-Lyer-Flugel의 분류에 의하면 한국의 복식은 고정의상(fiixed costume)에; 서양의 의복은 변동의상(modsih costume)에 속한다.<sup>12)</sup> 이와같이 한복은 전통 의상이기 때문에 의상에 속하고 고정의상은 시간의 영구성이 있으며 사회적인 경쟁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성별로 패션의 변천과정을 보면 여성복의 특징이 남성복과 달리 색상이 다양하고 재료가 다양하며 의복 무게가 남성복보다 가볍고 환경이나 온도에 적응성이 높고 활동이 자유롭고 청결하며 그 이외에 신체노출권리가 있으며 신체의 부분적 압박이 없다. 이와는 반대로 남성복의 특징은 동료와 다른 옷을 입었을때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남성들의 자기도취중(Narrcisim) 및 과시벽의 억압이나 절제가 요청되며 남성복은 남근 숭배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복의 포기는 남자역할의 포기라는 거세 콤플렉스(complex)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성복의 변천은 여성복의 변천보다 활발하지 못해왔고 활발할 수도 없었다.<sup>13)</sup>

III. 조사방법

패션변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Payne B.에 나오는 남녀 복식 총 435개와 유희경의 한국 복식사에 나오는 남녀복식 총 74개, 합해서 509개의 복식 그림을 Flügel의 패션 변천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패션 변천요인으로는 장식 및 정숙 요인, 자기과시욕구 요인중 신체과시 및 의복과시 요인, 젊게 보이는 요인과 성숙해 보이는 요인, 여자육체의 성적흥분 부위를 중심으로 하였다.<그림 1>.

복식사에 제시된 복식그림중 Flügel의 변천요인 특성이 애매하다고 생각된 100개의 그림은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재 분석한 다음 집계 처리함으로써 본 논문의 신뢰도를 보완하였다.

Payne의 서양복식사의 분류는 이집트에서 19세기 까지 12시기로 구분하였고, 한국복식사의 구분은 고구려(B.C.27~A.D.660), 백제(B.C.18~A.D.660), 신라(B.C.57~A.D.935)를 포함하여 상대복식시기와 고려시대(918~1392), 조선왕조 1기(1392~1494) 조선왕조 2기(1495~1608), 조선왕조 3기(1609~1776), 조선왕조 4기(1777~1876), 조선왕조 5기(1877~1910), 개화기로 구분하였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복식사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복식의 시대변천의 특징이나 또는 기존 선행 복식논문에서 발표된 내용과 형식은 배제하고 새로운 전개방법으로 간략하게 한계를 정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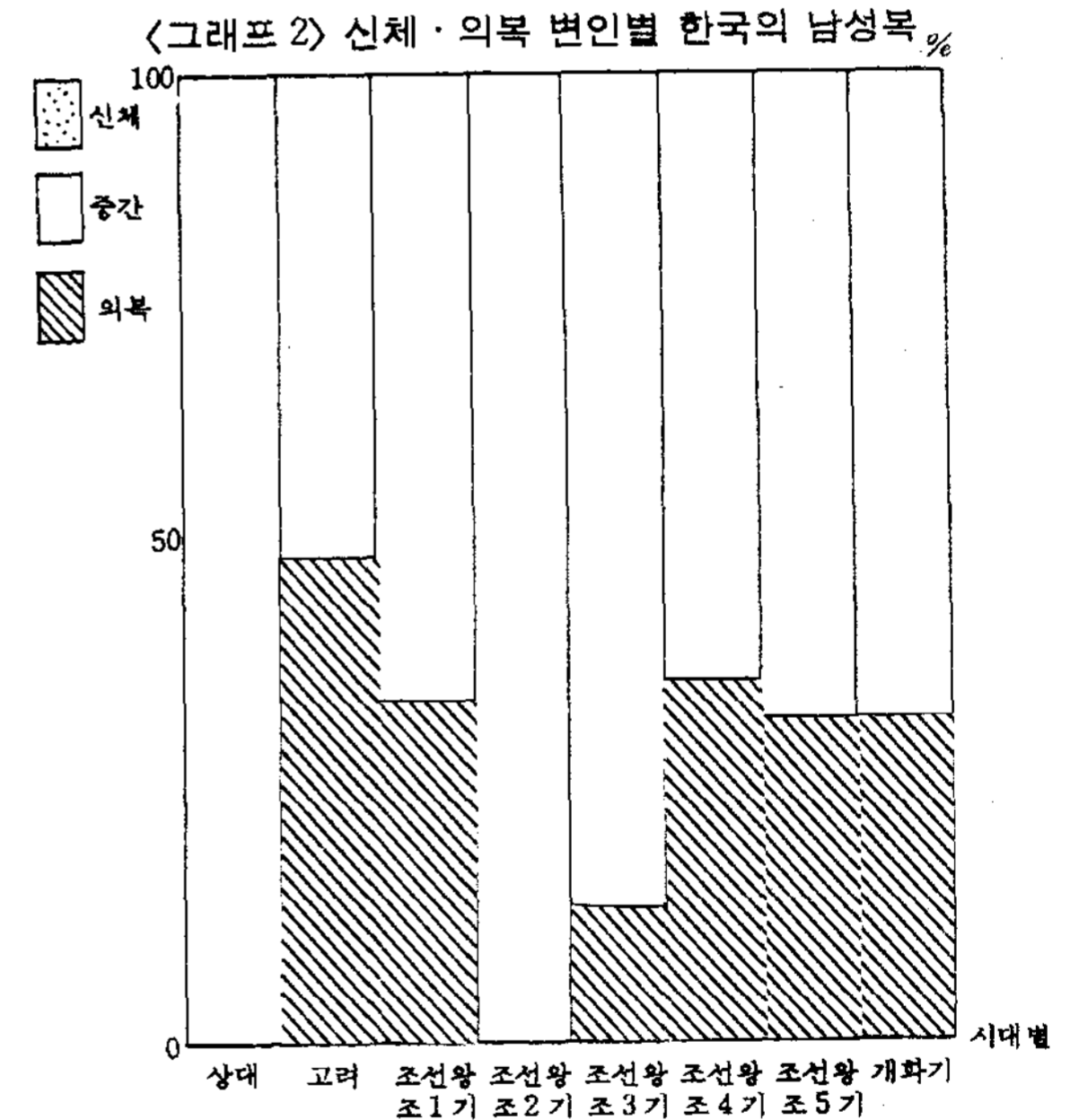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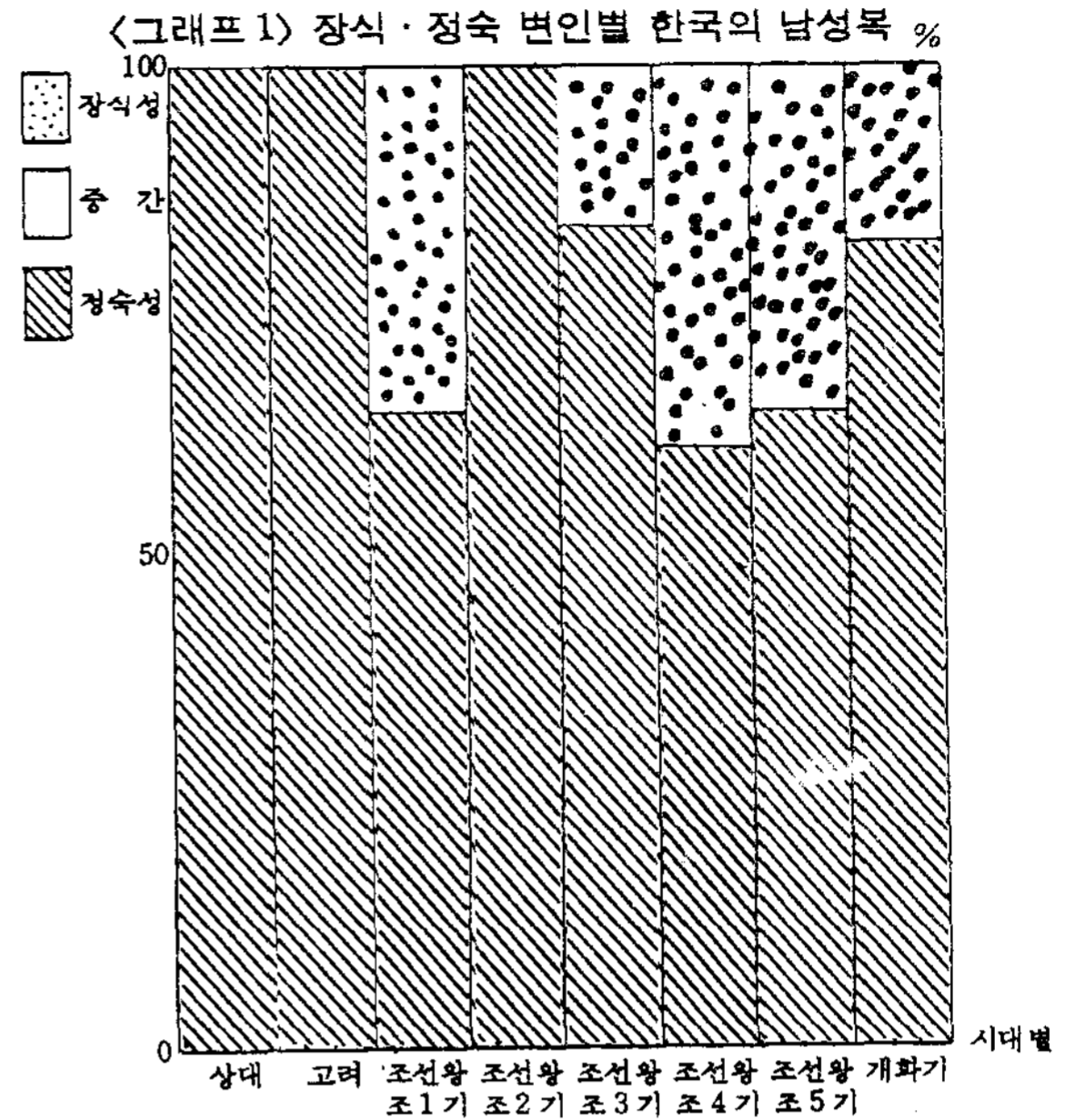
#### IV. 결과

한국의 남성복 변천은 의복착용동기 요인인 장식, 정숙 변인별로 보았을 때 정숙변인이 지배적이었고 조선왕조1기(1392~1494), 조선왕조4기(1777~1876), 조선왕조5기(1877~1910)에 장식변인이 다른 시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표현 방법중에는 주로 신체도 의복도 아닌 중간의 방법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인식 시키려했으며, 한국사람들은 의복이나 육체에 대한 관심이 서양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려고 할 때 육체변인을 이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신선하고(fresh), 정력과 박력(vigorous)이 포함된 젊음(youth)의 표출과, 성숙의 분위기중에는 중간단계를 취해 너무 정력적이지도 않고 침식작용이 일어나 노화된 분위기가 아닌 의복 분위기를 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체 강조 부위로는 가슴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표1), (그래프1~4)



〈표 1〉 시대별로 본 한국의 남성복 변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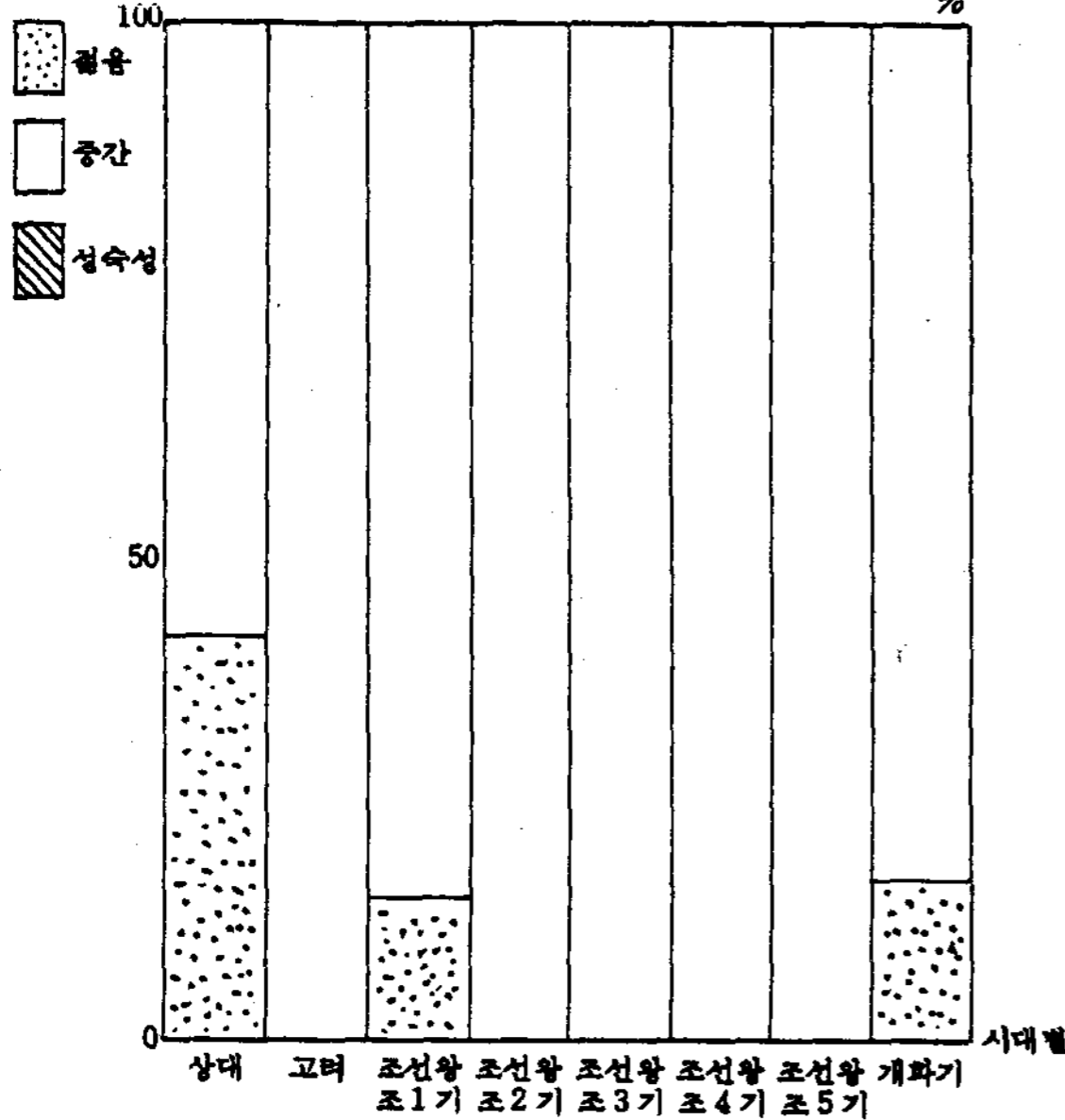
시대구분	순서 변인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개 (%)	신체	중간	의복 개 (%)	젊음	중간	성숙성 개 (%)
상대복식 (n=5)	-	-	-	5 (100.0)	-	5 (100.0)	-	2 (40.0)	3 (60.0)	-
고려시대 (n=2)	-	-	-	2 (100.0)	-	1 (50.0)	1 (50.0)	-	2 (100.0)	-
조선왕조 1기 (n=14)	5 (35.7)	-	-	9 (64.3)	-	9 (64.3)	5 (35.7)	2 (14.3)	12 (85.7)	-
조선왕조 2기 (n=2)	-	-	-	2 (100.0)	-	2 (100.0)	-	-	2 (100.0)	-
조선왕조 3기 (n=7)	1 (14.3)	-	-	6 (85.7)	-	6 (85.7)	1 (14.3)	-	7 (100.0)	-
조선왕조 4기 (n=8)	3 (37.5)	-	-	5 (62.5)	-	5 (62.5)	3 (37.5)	-	8 (100.0)	-
조선왕조 5기 (n=3)	1 (33.3)	-	-	2 (66.7)	-	2 (66.7)	1 (33.3)	-	3 (100.0)	-
개화기 (n=6)	1 (16.7)	-	-	5 (83.3)	-	4 (66.7)	2 (33.3)	1 (16.7)	5 (83.3)	-

시대구분	순서 변인	변인 4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기타 개 (%)
상대복식 (n=5)	-	-	-	-	-	-	-	-	5 (100)
고려시대 (n=2)	-	-	-	-	-	-	-	-	2 (100.0)
조선왕조 1기* (n=14)	-	-	2 (13.3)	2 (13.3)	-	-	1 (6.7)	2 (13.3)	8 (53.4)
조선왕조 2기 (n=2)	-	-	1 (50.0)	-	-	-	-	-	1 (50.0)
조선왕조 3기* (n=7)	-	-	1 (12.5)	1 (12.5)	-	-	-	1 (12.5)	5 (67.5)
조선왕조 4기* (n=8)	-	-	-	3 (33.3)	-	-	-	1 (11.1)	5 (55.6)
조선왕조 5기* (n=3)	-	-	-	1 (25.0)	-	-	-	1 (25.0)	2 (50.0)
개화기 (n=6)	-	-	-	3 (50.0)	-	-	-	-	3 (50.0)

\* 강조부위가 2 이상인 경우

<그래프 3> 젊음·성숙 변인별 한국의 남성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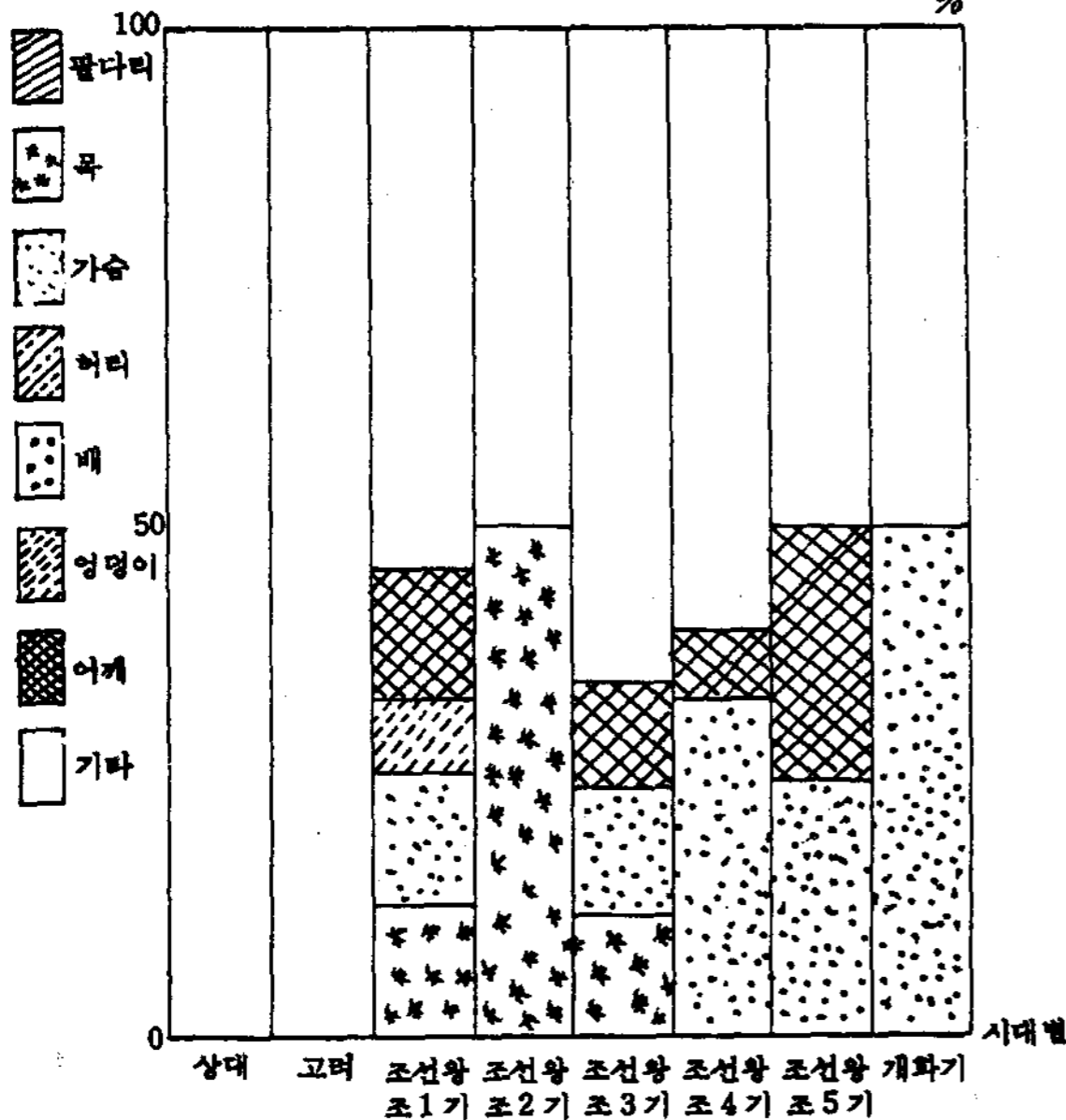
남성복과는 달리 장식욕구가 의복에 잘 표현되고 있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신체의 매력 보다는 의복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자태를 이용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2기(1495~1608)에서는 신체도, 의복에도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나 조선4기(1777~1876)에 한국여성복식사상, 처음으로 육체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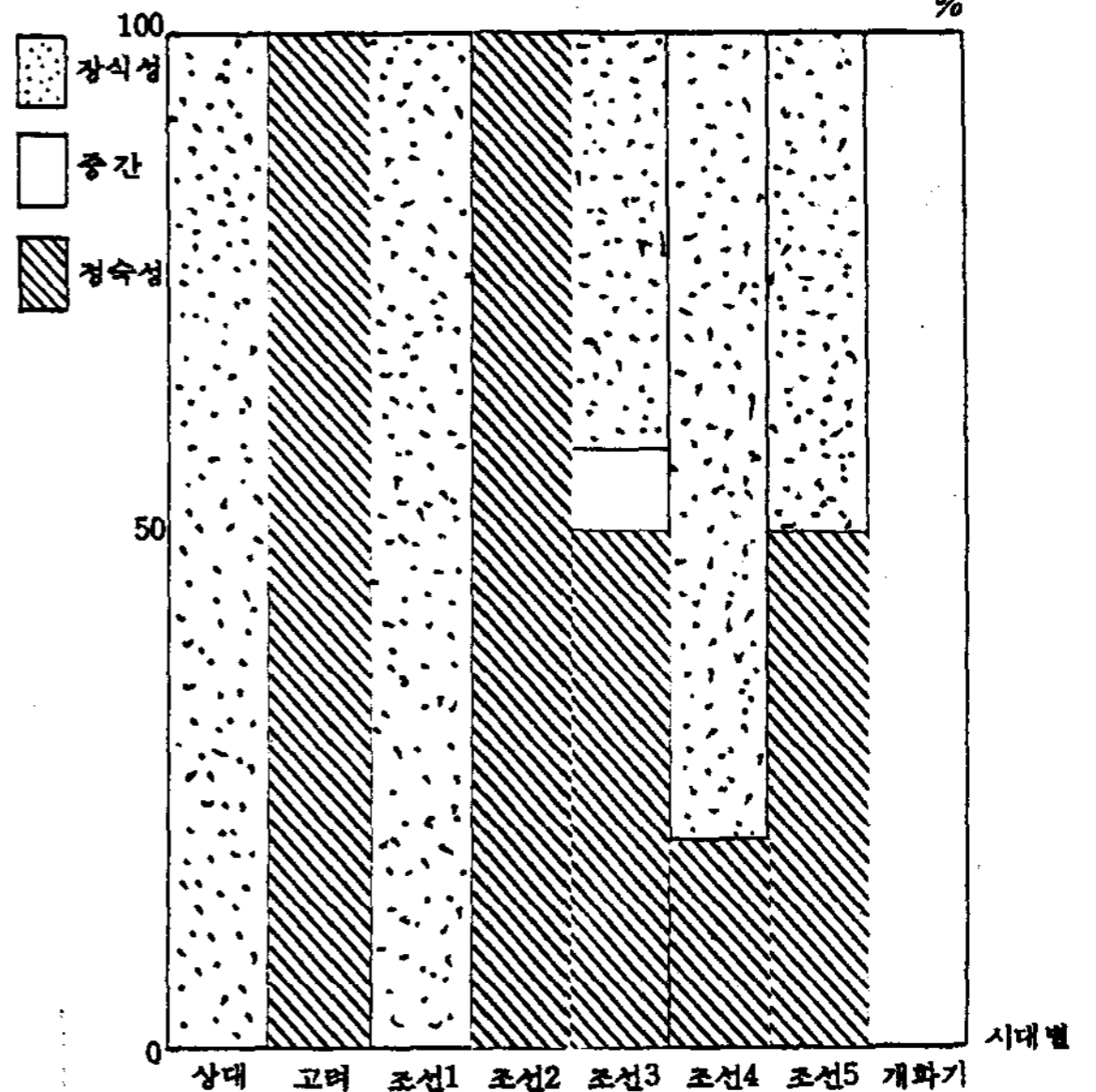
젊음과 성숙의 느낌중에는 젊음과 성숙의 중간방법이 지배적이었고 상대시기(B.C.37~A.D.935), 조선4기(777~1876), 조선5기(1877~1910)에 성숙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의복이 있었다.

여성의 육체중에는 서양복식의 패션게임에 등장하는 여성신체 부위와는 달리, 가슴, 목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많았고, 때로는 소매를 강조하기도 하였다.(표2), (그래프 5~8)

<그래프 4> 한국 남성복의 신체강조 부위 %



<그래프 5> 장식·정숙 변인별 한국의 여성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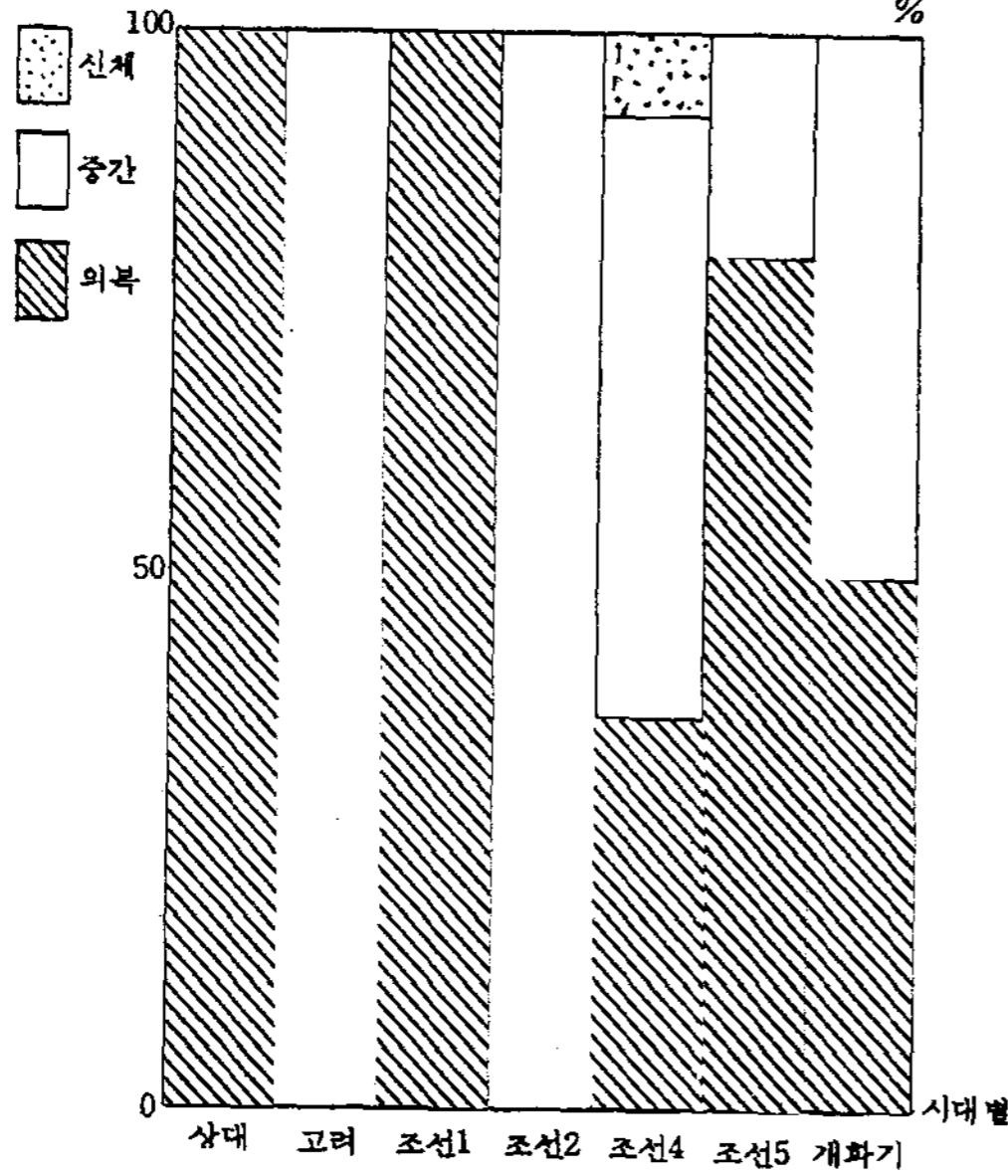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복 변천은 장식, 정숙 변인 별로 보았을 때 상대시기(B.C.37~A.D.668)에서 조선2기(1495~1608)까지는 변인이 서로 교차되고 있었으며,

〈표 2〉 시대별로 본 한국의 여성복 변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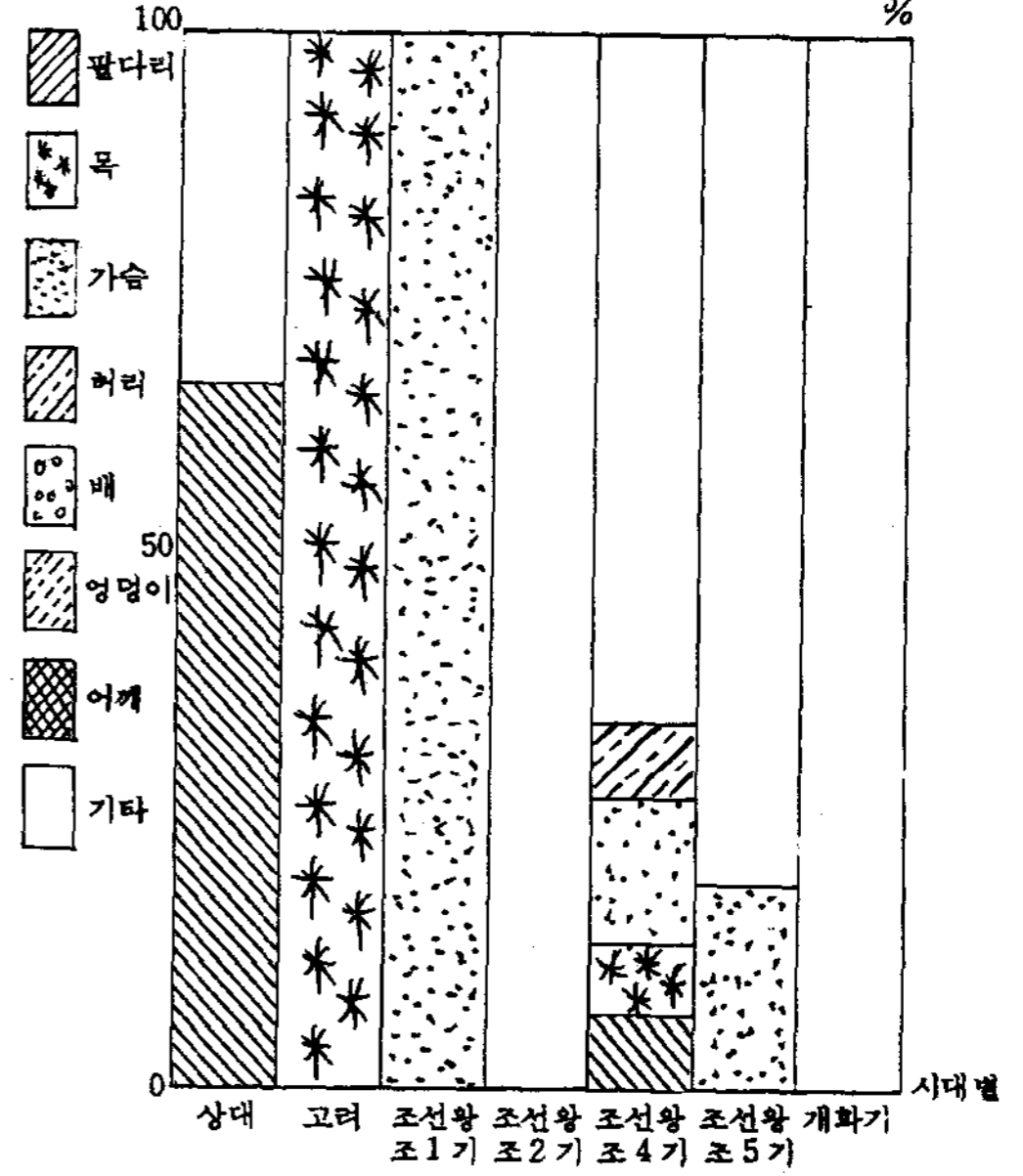
시대구분	순서 변인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개 (%)	신체	중간	의복 개 (%)	젊음	중간	성숙성 개 (%)
상대복식 (n=3)		3 (100.0)	-	-	-	-	3 (100.0)	-	2 (66.7)	1 (33.3)
고려시대 (n=1)		-	-	1 (100.0)	-	1 (100.0)	-	-	1 (100.0)	-
조선왕조 1기 (n=1)		1 (100)	-	-	-	-	1 (100.0)	-	-	1 (100.0)
조선왕조 2기 (n=1)		-	-	1 (100.0)	-	1 (100.0)	-	-	1 (100.0)	-
조선왕조 4기 (n=14)		6 (42.8)	1 (7.2)	7 (50.0)	1 (7.2)	8 (57.1)	5 (35.7)	-	9 (64.3)	5 (35.7)
조선왕조 5기 (n=5)		4 (80.0)	-	1 (20.0)	-	1 (20.0)	4 (80.0)	-	3 (60.0)	2 (40.0)
개화기 (n=2)		1 (50.0)	-	1 (50.0)	-	1 (50.0)	1 (50.0)	-	2 (100.0)	-
시대구분	순서 변인	변인 4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기타 개 (%)	
상대복식 (n=3)		2 (66.7)	-	-	-	-	-	-	1 (33.3)	
고려시대 (n=1)		-	1 (100.0)	-	-	-	-	-	-	
조선왕조 1기* (n=1)		-	-	1 (100.0)	-	-	-	-	-	
조선왕조 2기 (n=1)		-	-	-	-	-	-	-	1 (100.0)	
조선왕조 4기 (n=14)		1 (7.1)	1 (7.1)	2 (14.3)	1 (7.1)	-	-	-	9 (64.4)	
조선왕조 5기 (n=5)		-	-	1 (20.0)	-	-	-	-	4 (80.0)	
개화기 (n=2)		-	-	-	-	-	-	-	2 (100.0)	

\* 조선왕조 3기에 해당하는 여성복식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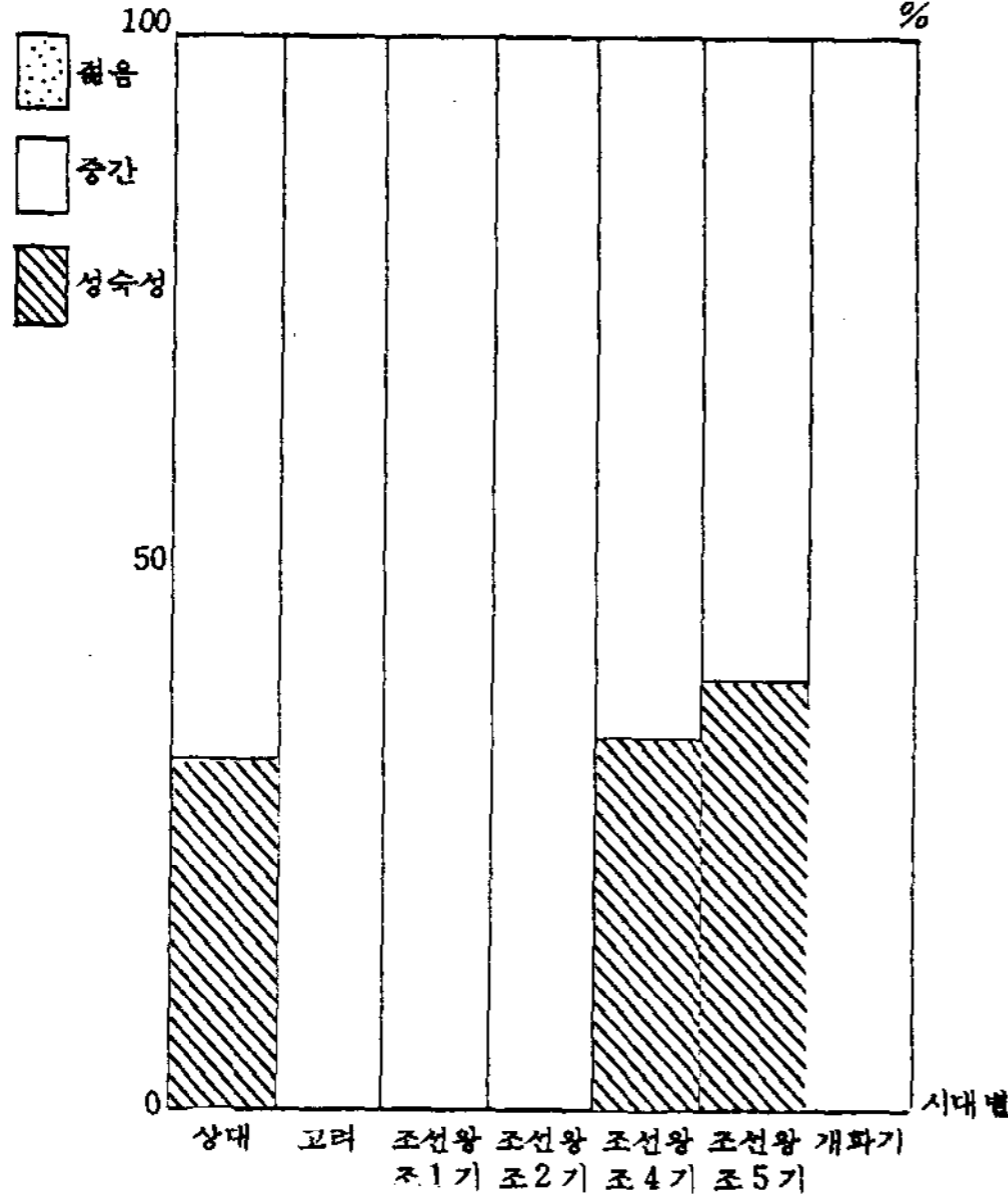
<그래프 6> 신체·의복 변이별 한국의 여성복 %



<그래프 8> 한국 여성복의 신체강조 부위 %



<그래프 7> 젊음·성숙 변이별 한국의 여성복 %



서양의 남성복 변천은 의복착용동기중 장식, 정숙변인 별로 보았을때 장식변인과 정숙변인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16, C, 17, C, 18, C의 남성복에 많은 장식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그시대의 남성들의 장식 욕구가 컸었던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중에는 의복과 신체 강조의 방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집트에서 13세기까지는 신체과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고 비잔틴과 16세기 이후는 의복의 장식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과시하였다.

자신의 의복 분위기는 신선하고, 정력적이며 박력이 있는 젊음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성숙된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중에 서양의 남자들은 젊음을 나타내려고 하였고, 신체강조부위는 팔, 다리, 어깨, 목을 강조하였다.(표3, 4), (그래프 9~

12)

〈표 3〉 시대별로 본 서양의 남성복 변천요인

시대구분 변인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개 (%)	신체	중간	의복 개 (%)	젊음	중간	정숙성 개 (%)
이집트 (n=10)	4 (40.0)	1 (10.0)	5 (50.0)	7 (70.0)	1 (10.0)	2 (20.0)	3 (30.0)	7 (70.0)	
메소포타미아 (n=8)	2 (25.0)	-	6 (75.0)	5 (62.5)	1 (12.5)	2 (25.0)	-	7 (87.5)	1 (12.5)
크레타와 그리스 (n=12)	5 (41.7)	-	7 (58.3)	4 (33.3)	4 (33.3)	4 (33.3)	4 (33.3)	8 (66.7)	-
에트루리아 (n=17)	2 (18.8)	-	15 (88.2)	7 (41.2)	8 (47.0)	2 (11.8)	1 (5.9)	16 (94.1)	-
비잔틴 (n=8)	4 (50.0)	1 (12.5)	3 (37.5)	1 (12.5)	1 (12.5)	6 (75.0)	1 (12.5)	5 (62.5)	2 (25.0)
12세기까지 (n=8)	3 (37.5)	1 (12.5)	4 (50.0)	3 (37.5)	1 (12.5)	4 (50.0)	1 (12.5)	5 (62.5)	2 (25.0)
12~13세기 (n=16)	-	1 (6.3)	15 (93.7)	8 (50.0)	5 (31.3)	3 (18.7)	-	15 (93.7)	1 (6.9)
중세후기 (n=3)	19 (44.2)	4 (9.3)	20 (46.5)	12 (27.9)	15 (34.9)	16 (37.2)	15 (34.9)	21 (48.8)	7 (16.3)
16세기 (n=23)	23 (100.0)	-	-	1 (4.3)	1 (4.3)	21 (91.4)	19 (82.6)	4 (17.4)	-
17세기 (n=31)	31 (100.0)	-	-	-	-	31 (100.0)	17 (54.8)	5 (16.1)	9 (29.1)
18세기 (n=21)	15 (71.4)	-	6 (28.6)	1 (4.8)	2 (9.5)	18 (85.7)	12 (57.1)	2 (9.5)	7 (33.4)
19세기 (n=19)	3 (15.8)	2 (10.5)	14 (73.9)	3 (15.8)	2 (10.5)	14 (73.7)	4 (21.1)	2 (10.5)	13 (68.4)
합 계	111	10	95	52	41	123	77	9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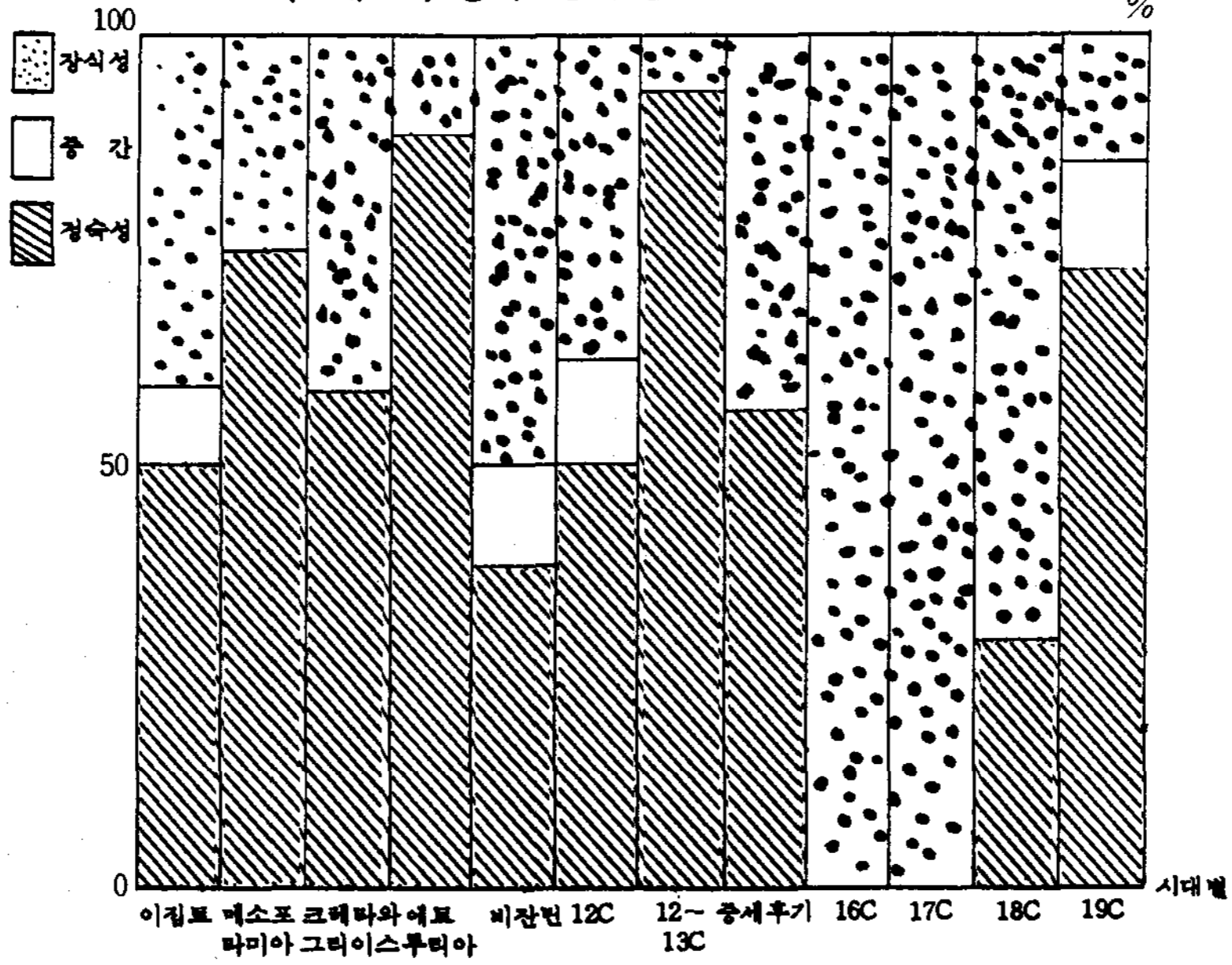


〈표 4〉 시대별로 본 서양의 남성복 변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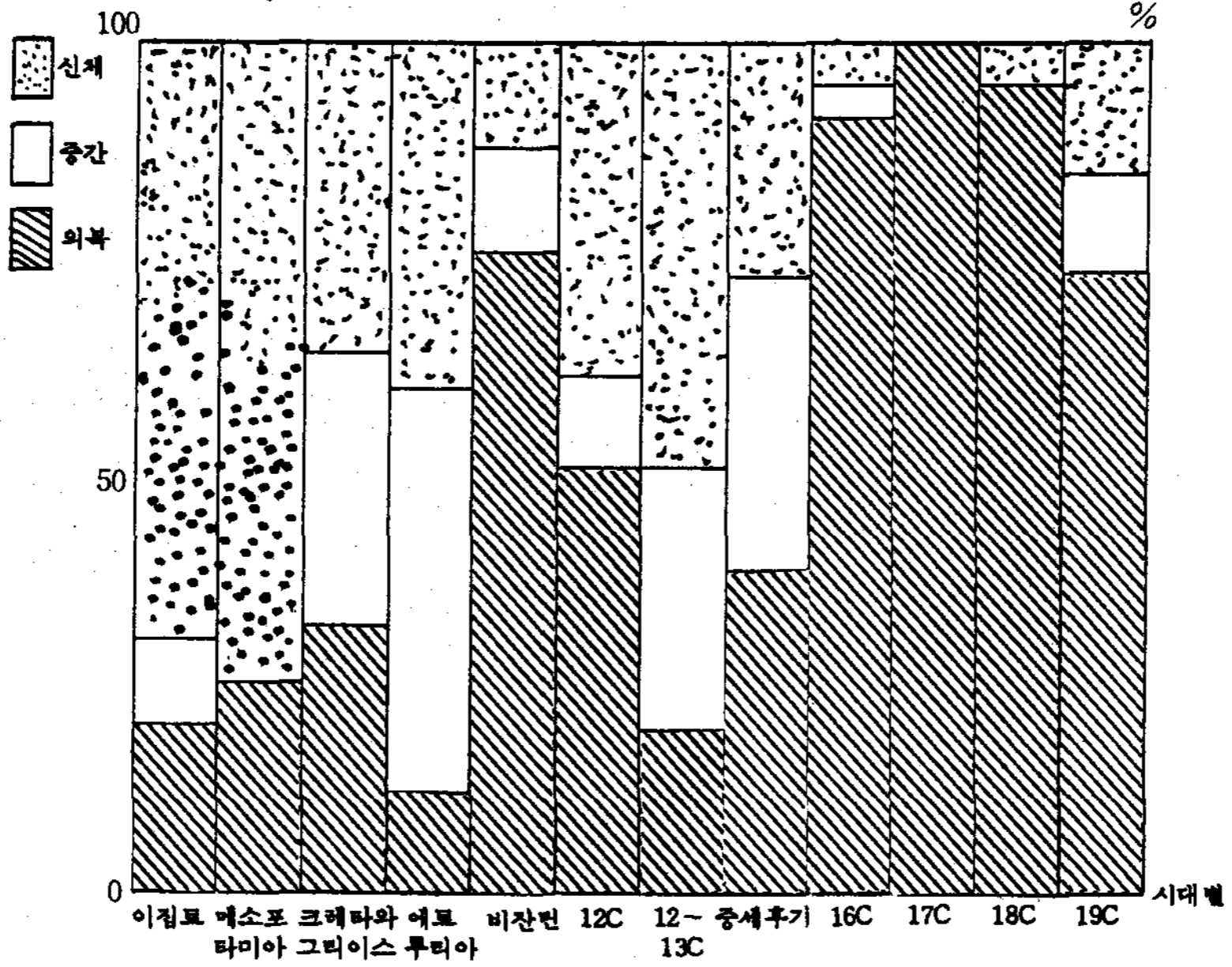
시대구분	강조부위 순서	변인 4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이집트 (n=10)	-	-	2 (20.0)	3 (30.0)	2 (20.0)	-	-	개 (%) 3 (30.0)
메소포타미아 (n=8)	-	-	-	1 (12.5)	-	2 (25.0)	-	5 (62.5)
크레타와 그리스 (n=12)	1 (18.3)	-	-	4 (43.3)	-	-	2 (16.7)	5 (41.7)
에트루리아 (n=17)	2 (11.8)	-	-	-	-	-	4 (23.5)	11 (64.7)
비잔틴 (n=8)	-	1 (12.5)	-	-	-	-	2 (25.0)	5 (62.5)
12세기까지 (n=8)	5 (62.5)	1 (12.5)	-	-	-	-	1 (12.5)	1 (12.5)
12~13세기 (n=6)	2 (12.2)	4 (25.0)	-	-	-	-	2 (12.3)	8 (50.0)
중세후기* (n=44)	11 (25.0)	4 (9.1)	-	4 (9.1)	2 (4.5)	-	5 (11.4)	18 (40.9)
16세기 (n=23)	5 (21.7)	7 (30.4)	-	-	1 (4.4)	2 (8.7)	7 (30.4)	1 (4.4)
17세기* (n=32)	14 (43.8)	9 (28.0)	-	-	1 (3.1)	4 (12.5)	2 (6.3)	2 (6.3)
18세기* (n=23)	14 (60.9)	5 (21.7)	-	-	-	1 (4.3)	-	3 (13.1)
19세기* (n=20)	1 (4.8)	5 (23.8)	1 (4.8)	5 (23.8)	1 (4.8)	-	-	8 (38.0)
합 계	55	36	3	17	7	9	25	70

\* 2곳 이상 강조부위가 있는 경우

〈그래프 9〉 장식·정숙 변인별 서양의 남성복



〈그래프 10〉 신체·의복 변인별 서양의 남성복





서구의 여성복 변천은 장식변인과 정숙 변인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양 복식사의 전기시대에서는 정숙성 변인이 강조되었고, 후기시대에는 장식성 변인이 많이 강조되었다.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는 신체를 강조하던지

아니면 의복을 강조하는 방법을 써서 한국의 애매한 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서양복식사의 전기에는 여자의 육체가 많이 노출되어 강조되었으나 후기에는 장식이 다양하게 발달된 의복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5〉 시대별로 본 서양의 여성복 변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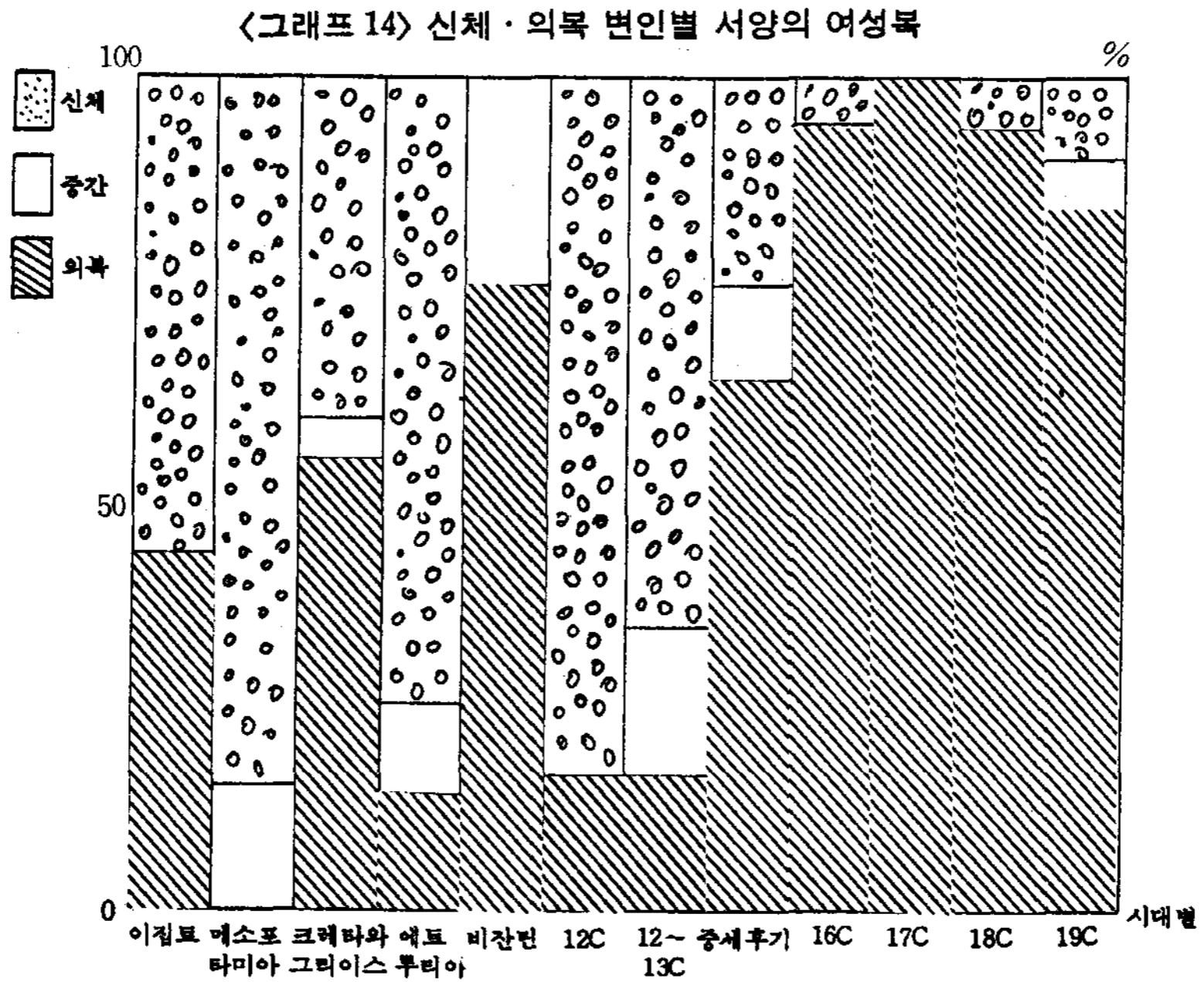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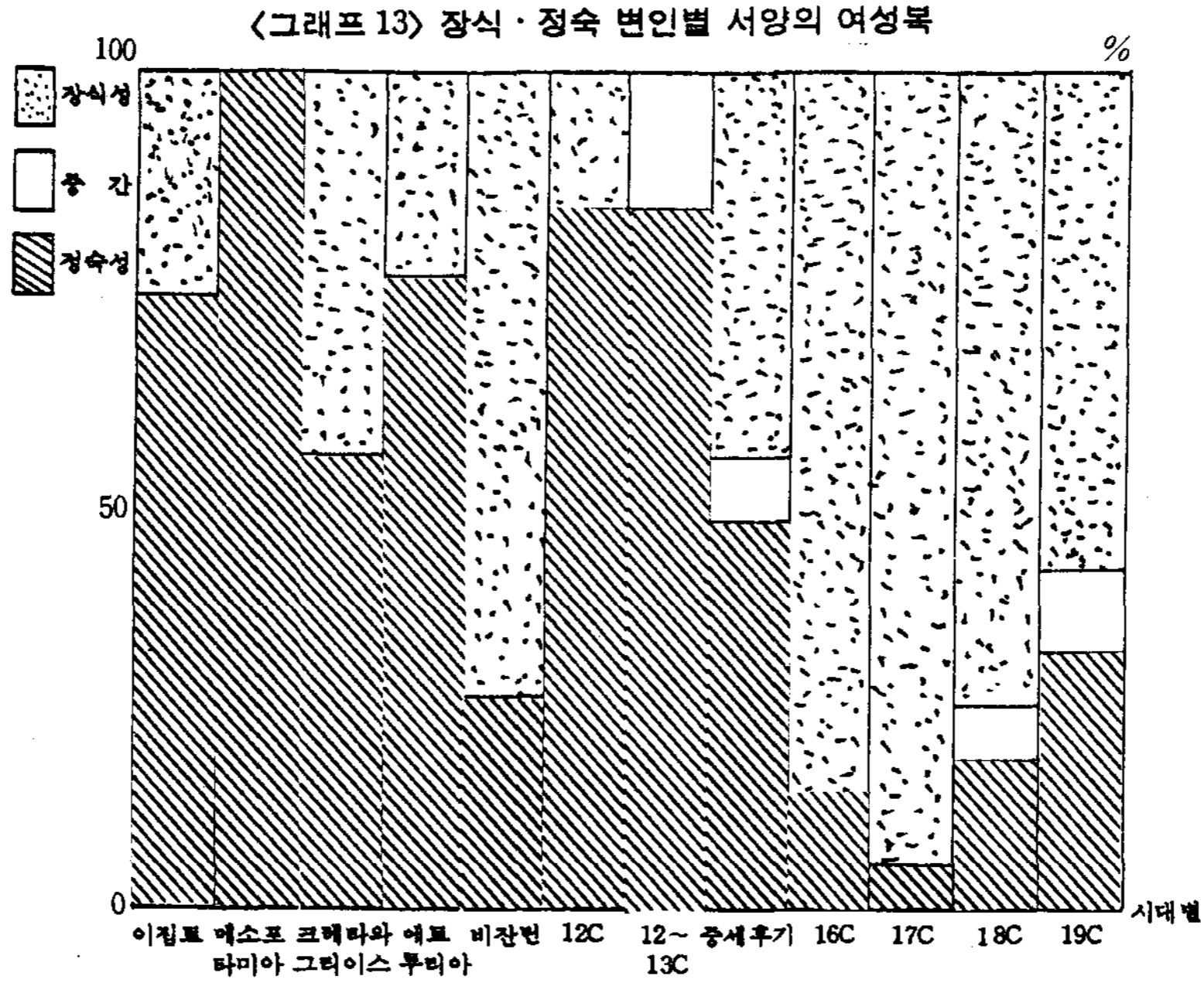
시대구분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신체	중간	의복	젊음	중간	성숙성
이집트 (n=7)	2 (28.6)	-	5 (71.4)	4 (57.1)	-	3 (42.9)	-	6 (85.7)	1 (14.3)
메소포타미아 (n=6)	-	-	6 (100.0)	5 (83.3)	1 (16.7)	-	-	6 (100.0)	-
크레타와 그리스 (n=13)	6 (46.2)	-	7 (53.8)	5 (38.5)	1 (7.7)	7 (53.8)	1 (7.0)	8 (61.5)	4 (30.8)
에트루리아 (n=8)	2 (25.0)	-	6 (75.0)	6 (75.0)	1 (12.5)	1 (12.5)	2 (25.0)	6 (75.0)	-
비잔틴 (n=4)	3 (75.0)	-	1 (25.0)	1 (25.0)	-	3 (75.0)	-	2 (50.0)	2 (50.0)
12세기까지 (n=6)	1 (16.7)	-	5 (83.3)	5 (83.3)	-	1 (16.7)	-	5 (83.3)	1 (16.7)
12~13세기 (n=6)	-	1 (16.7)	5 (83.3)	4 (66.6)	1 (16.7)	1 (16.7)	-	5 (83.3)	1 (16.7)
중세후기 (n=34)	16 (47.1)	3 (8.8)	15 (44.1)	8 (23.5)	4 (11.8)	22 (64.7)	1 (2.9)	18 (52.9)	15 (44.2)
16세기 (n=22)	19 (86.4)	-	3 (13.6)	1 (4.5)	-	21 (95.5)	-	2 (9.1)	20 (90.9)
17세기 (n=27)	26 (96.3)	-	1 (3.7)	-	-	27 (100.0)	-	2 (7.4)	25 (92.6)
18세기 (n=35)	27 (77.1)	2 (5.7)	6 (17.2)	2 (5.7)	-	33 (94.3)	5 (14.3)	4 (11.9)	26 (74.3)
19세기 (n=51)	31 (60.8)	5 (9.8)	15 (29.4)	5 (9.8)	2 (3.9)	44 (86.3)	4 (7.8)	8 (15.7)	39 (76.5)
합 계	133	11	75	46	10	163	13	73	133

〈표 6〉 시대별로 본 서양의 여성복 변천요인

시대구분	강조부위 순서	변인 4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기타
이집트 (n=7)	-	-	3 (42.8)	-	1 (14.4)	-	-	-	3 (42.8)
메소포타미아 (n=6)	-	-	1 (16.7)	-	1 (16.7)	-	-	-	4 (66.6)
크레타와 그리스 (n=13)	-	-	-	5 (38.4)	2 (15.4)	-	-	3 (23.1)	3 (23.1)
에트루리아 (n=8)	-	-	-	3 (37.5)	1 (12.5)	-	-	1 (12.5)	3 (37.5)
비잔틴 (n=4)	-	-	4 (100.0)	-	-	-	-	-	-
12세기까지 (n=6)	2 (33.3)	-	-	-	-	1 (16.7)	-	-	33 (50.0)
12~13세기 (n=6)	-	1 (16.7)	-	-	-	-	-	1 (16.7)	43 (66.6)
14~15세기 (n=34)	1 (2.9)	16 (47.1)	3 (8.8)	-	3 (8.8)	-	-	-	113 (32.4)
16세기 (n=22)	2 (9.1)	8 (36.4)	7 (31.8)	3 (13.6)	-	-	-	2 (9.1)	-
17세기* (n=22)	2 (7.1)	10 (35.7)	8 (28.7)	2 (7.1)	-	5 (19.8)	1 (3.6)	-	-
18세기* (n=37)	2 (5.4)	6 (16.2)	16 (43.2)	3 (8.2)	-	8 (21.6)	-	-	23 (5.4)
19세기* (n=55)	3 (5.4)	4 (7.3)	8 (14.5)	8 (14.5)	-	12 (21.8)	15 (27.3)	-	53 (9.2)
합 계		12	53	50	21	4	25	23	38

\* 2곳 이상 강조부위가 있는 경우

젊음과 성숙이 느낌표현은 성숙한 여성 분위기가 부위는 노출된 목, 가슴, 어깨 순위였다.(표5,6), 여러시대를 통해서 추구했으며 여자의 강조 신체 (그래프 13~16)





〈표 7〉 시대별로 본 한국복식의 변천요인

시대구분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개 (%)	신체	중간	의복 개 (%)	젊음	중간	정숙성 개 (%)
상대복식 (n=8)	3 (37.5)	-	5 (62.5)	-	5 (62.5)	3 (37.5)	2 (25.0)	5 (62.5)	1 (12.5)
고려시대 (n=3)	-	-	3 (100.0)	-	2 (66.7)	1 (33.3)	-	3 (100.0)	-
조선왕조 1기 (n=15)	6 (40.0)	-	9 (60.0)	-	9 (60.0)	6 (40.0)	2 (13.3)	12 (80.0)	1 (6.7)
조선왕조 2기 (n=3)	-	-	3 (100.0)	-	3 (100.0)	-	-	3 (100.0)	-
조선왕조 3기 (n=7)	1 (14.3)	-	6 (85.7)	-	6 (85.7)	1 (14.3)	-	7 (100.0)	-
조선왕조 4기 (n=22)	9 (40.9)	1 (4.5)	12 (54.6)	1 (4.5)	13 (59.1)	8 (36.4)	-	17 (77.3)	5 (22.7)
조선왕조 5기 (n=8)	5 (62.5)	-	3 (37.5)	-	3 (37.5)	5 (62.5)	-	6 (75.0)	2 (25.0)
개화기 (n=8)	2 (25.0)	-	6 (75.0)	-	5 (62.5)	3 (37.5)	1 (12.5)	7 (87.5)	-

시대구분	변인 4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기타 개 (%)
상대복식 (n=8)	2 (25.0)	-	-	-	-	-	-	6 (75.0)
고려시대 (n=3)	-	1 (33.3)	-	-	-	-	-	2 (66.7)
조선왕조 1기* (n=15)	-	2 (12.5)	3 (18.7)	-	-	1 (6.3)	2 (12.5)	8 (50.0)
조선왕조 2기 (n=3)	-	1 (33.3)	-	-	-	-	-	2 (66.7)
조선왕조 3기* (n=7)	-	1 (12.5)	1 (12.5)	-	-	-	1 (12.5)	5 (67.5)
조선왕조 4기* (n=22)	1 (4.3)	1 (4.3)	5 (21.8)	1 (4.3)	-	-	1 (4.3)	14 (61.0)
조선왕조 5기* (n=8)	-	-	2 (22.2)	-	-	-	1 (11.1)	6 (66.7)
개화기 (n=8)	-	-	3 (37.5)	-	-	-	-	5 (62.5)

\* 강조부위가 2 이상인 경우



〈표 8〉 시대별로 본 서양복식의 변천요인

시대구분 변인	변인 1			변인 2			변인 3		
	장식성	중간	정숙성 개 (%)	신체	중간	의복 개 (%)	젊음	중간	정숙성 개 (%)
이집트 (n=17)	6 (35.3)	2 (5.9)	10 (58.8)	11 (64.7)	1 (5.9)	5 (29.4)	3 (17.6)	13 (76.5)	1 (5.9)
메소포타미아 (n=14)	2 (14.3)	-	12 (85.7)	10 (71.4)	2 (14.3)	2 (14.3)	-	13 (92.8)	1 (7.2)
크레타와 그리스 (n=25)	11 (44.0)	-	14 (56.0)	9 (36.0)	5 (20.0)	11 (44.0)	5 (20.0)	16 (64.0)	4 (16.0)
에트루리아 (n=25)	4 (16.0)	-	21 (84.0)	13 (52.0)	9 (36.0)	3 (12.0)	3 (12.0)	22 (88.0)	-
비잔틴 (n=12)	7 (58.3)	1 (8.3)	4 (33.4)	2 (16.7)	1 (8.3)	9 (75.0)	1 (8.3)	7 (58.0)	4 (33.4)
12세기까지 (n=14)	4 (28.6)	1 (7.1)	9 (64.3)	8 (57.2)	1 (7.1)	5 (35.7)	1 (7.1)	11 (78.6)	2 (14.3)
12~13세기 (n=22)	-	2 (9.1)	20 (90.9)	12 (54.5)	6 (27.3)	4 (18.1)	-	20 (90.9)	2 (9.1)
중세후기 (n=17)	35 (45.4)	7 (9.2)	35 (45.4)	20 (26.0)	19 (24.7)	38 (49.3)	16 (20.8)	39 (50.6)	22 (28.6)
16세기 (n=45)	42 (93.3)	-	3 (6.7)	2 (4.5)	1 (2.2)	42 (93.3)	19 (42.2)	6 (13.3)	20 (44.5)
17세기 (n=58)	57 (98.3)	-	1 (1.7)	-	-	58 (100.0)	17 (29.3)	7 (12.1)	34 (58.6)
18세기 (n=56)	42 (75.0)	2 (3.6)	12 (21.4)	3 (5.4)	2 (3.6)	51 (91.0)	17 (30.3)	6 (10.7)	33 (59.0)
19세기 (n=70)	34 (48.6)	7 (10.0)	29 (41.4)	8 (11.4)	4 (5.7)	58 (82.9)	8 (11.4)	10 (14.3)	52 (74.3)
합 계	244	21	170	98	51	286	90	170	175

〈표 9〉 시대별로 본 서양복식의 변천요인

시대구분	강조부위		변인 4						
	순서	팔·다리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어깨	기타
이집트 (n=17)	-	-	3 (17.6)	2 (11.8)	4 (23.5)	2 (11.8)	-	-	개 (%) 6 (35.3)
메소포타미아 (n=14)	-	-	1 (7.1)	-	2 (14.3)	-	2 (14.3)	-	9 (64.3)
크레타와 그리스 (n=25)	1 (4.0)	-	-	5 (20.0)	6 (24.0)	-	-	5 (20.0)	8 (32.0)
에트루리아 (n=25)	2 (8.0)	-	-	3 (12.0)	1 (4.0)	-	-	5 (20.0)	14 (56.0)
비잔틴 (n=12)	-	-	5 (41.7)	-	-	-	-	2 (16.6)	5 (41.7)
12세기까지 (n=14)	7 (50.0)	-	1 (7.1)	-	-	1 (7.1)	1-	1 (7.1)	4 (28.7)
12~13세기 (n=22)	2 (9.1)	-	5 (22.7)	-	-	-	-	3 (13.6)	12 (54.6)
중세후기* (n=88)	12 (15.4)	-	20 (25.6)	3 (3.8)	4 (5.1)	5 (6.4)	-	5 (6.4)	29 (37.3)
16세기 (n=45)	7 (15.5)	-	15 (33.4)	7 (15.5)	3 (6.7)	1 (2.2)	2 (4.5)	9 (20.0)	1 (2.2)
17세기* (n=60)	16 (26.7)	-	19 (31.7)	8 (13.3)	2 (3.3)	1 (1.7)	9 (15.0)	3 (5.0)	2 (3.3)
18세기* (n=60)	16 (26.7)	-	11 (18.3)	16 (26.7)	3 (5.0)	-	9 (15.0)	-	5 (8.3)
19세기* (n=76)	4 (5.3)	-	9 (11.8)	9 (11.8)	13 (17.9)	1 (1.4)	12 (15.8)	15 (19.7)	13 (17.0)
합 계	67	-	89	53	38	11	34	48	108

\* 2곳 이상 강조부위가 있는 경우

V. 결론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지배적인 생각은 극단적인것 보다는 중간 타협적인것을 선택했고, 노골적 이거나 직접적인 것 보다는 은밀하고 은근한 생각을 지녔었던 것에 비하여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서양인의 생각은 분명하고, 적극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7, 8, 9)

한국의 남성복은 행실이 바르고, 겸손하며 예의바

른 정숙변인이 지배적이었으며, 자신을 과시할때 의복도 신체도 분명치 않은 제3의 방법으로 자신을 표출했고, 정력적이며 박력이 있어 보이는 젊음과 성숙의 분위기중 그 중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신체의 강조부위는 가슴쪽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서양의 복식사에 나타난 서양인은 정숙변인이 지배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유쾌하고 단적인 직관에 기초하여 유쾌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직감적인 장식 변인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도 한국 사람들과 차이를 보여 신체를 노골적으로 강조하던 지 아니면 의복에 많은 장식을 함으로써 자신을 강조하였고, 항상 신선한, 박력있는 모습을 지니고 싶어 했던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서양복식은 한국의 복식과는 달리 팔, 다리, 어깨, 목 주위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여성복은 남성복과는 달리 장식변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남성복과 차이가 있다면 여성은 수줍고, 행실이 바른 성숙의 분위기를 더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서양복식과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여성복식은 장식 변인과 정숙변인이 유사하게 교차되기도 했으며 신체와 의복변인의 과시방법중에는 신체의 표출방법보다는 장식된 의복의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했고, 젊음과 성숙변인 중에는 비교적 중간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가슴, 목, 팔주변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

서양의 여성복은 장식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쾌감을 얻기도 했고, 예의바르고 수줍고 행실이 알맞는 정숙 변인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한국여성과는 달리 성적 흥분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이용한 자기 과시 방법과 장식적인 의복의 방법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선하며 정력이 있어보는 젊음보다는 성숙변인이 많이 나타났으며 신체강조 부위는 노출시킨 목, 가슴, 어깨부위였다.

본 논문에서 선택한 두 복식사가 이미 각시대를 비교적 가장 잘 대표하는 복식그림을 예시한 책이라고 생각할 때 각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을 추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나 Payne과 유희경의 복식사가 아닌 다른 저자의 복식사를 분석 한다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 후속연구로 다른 복식사도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적인 시대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인용 및 참고문헌

- 1) Ryan, Mary Shaw,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Holt, Rinehart-Winston, Inc : 1966, P.81 ~97.
- 2) 임숙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복식의 기능과 미래의 역할, 중화복식학회, 1988, P.130
- 3) 앞책, P131
- 4)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Hogarth Press. Ltd., 1930
- 5)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 6) 송용섭, 정혜영, 패션 마케팅 범문사 1987, P35
- 7) 이은영, 강혜원, 패션의 사회심리학적 접근, 한국 의류학회지, 1986, P55
- 8) 앞책, P56
- 9) Troxell, M.D., Fashion merchandising, McGraw Hill, Inc., 1981, P.66
- 10) 앞책 P67
- 11)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Hogarth press Ltd., 1930. P
- 12) 앞책 P
- 13) 앞책 P
- 14)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89
- 15) Abrahams, Ethel Beatriee, Greek Dress, London : J. Murray, 1908.
- 16) Cunnington, C. Willett, English Women's Clothing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 Faber, 1937.
- 17)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the Hogarth Press Ltd., 1930
- 18) Gurel, L.M., and Beeson, M.S., Dimensions of Dress and adornment, Kendall/Hunt Publishing Co., 1979.
- 19) Houlock, Elizabeth,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 Renald 1929.
- 20) Kaisern,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Macmillan Publishing Co., 1989.
- 21) Laver, James(ed.), Costumes of the Western World, New York : Harper & Row, 1951.
- 22) Payne, B. History of Costume, Harper & Row Publishers, N.Y., 1965.

1) Ryan, Mary Shaw, Clothing : A study in Human